‘구남마을, 순창 대표 미술인 마을로’

군, 지역 미술작가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총 4억원 투입 이달말 작품 설치 완료

고(故) 박남재 화백의 활동공간이었던 섬진강 미술관이 있는 순창군 적성면 구남마을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미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지역 미술작가와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마을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순창미술발전소 작가팀(대표 양은정)과 협업해 국비 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군·도비 각각 4,000만원 등을 더해 총 4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달말이면 작품 설치가 완료된다.

조근호 작가의 ‘달빛 꿈 의자’ 등 9개 작품과 벽화 6작품 등 총 15개 작품과 전문 사진작가들이 적성면 주민들의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행복한 달빛 사진관’ 등을 설치했다. 특히 고(故) 박남재 섬진강 미술관 명예관장의 일대기를 지역 학생들에게 전하는 ‘행복한 달빛 미술관’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해 지역민에게 호평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주관한 미술발전소 작가팀은 총 49명의 작가로 구성, 추진단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남마을과 섬진강 미술관 등에 조형 작품들을 설치해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봄철 상춘객이 조

고(故) 박남재 화백의 활동공간이었던 섬진강 미술관이 있는 순창군 적성면 구남마을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금씩 늘어나면서 섬진강 미술관을 보러온 관광객들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과 벽화, 예쁜 돌담길 등을 보며 예술적 감성을 간직한 마을 정취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황숙주 순창군수도 현장을 둘러보며 달라진 구남마을에 순창미술발전소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황 군수는 “구남마을이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섬진강 미술관을 포함, 마을 곳곳에 다양한 미술품을 배치해 특색있고, 정감있는 예술인 마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은 구남마을 위쪽에 추가로 건립중인 전시관과 어은정 주변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머지않아 이곳 구남마을이 명실공히 순창을 대표하는 미술인 마을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신(新)나는 봄’

제104회 정기연주회 4월 1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진행

군산시립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봄 햇볕이 따스한 오는 4월 1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멋진 추억이 될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104회 정기연주회는 ‘신(新)나는 봄’이라는 주제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활력을 더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으로는 〈봄날(방탄소년단)〉, 〈누이〉, 〈뮤지컬: “DreamGirls”〉, 〈Feel Good〉 등 K-pop과 뮤지컬, 영화음악 등 그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했던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환상적인 합창사운드로 구성했다.

또한, 이번 연주회를 위해 특별게스트 〈엑시트〉의 아카펠라는 신비로운 무반주 합창음악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객석 간 거리두기를 충분히 준수 했으며, 공연 티켓은 전석 무료로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고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군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힘들고 지친 군산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

군산시립합창단은 4월 1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04회 정기연주회는 ‘신(新)나는 봄’을 진행한다.

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예술단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힐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홍진근 전주박물관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립전주박물관 홍진근 관장이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표어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진근 관장은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익산시는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이사장 이명준)에서 주관하며 문화와 예술분야 동호회로 나눠 모집한다.

문화분야는 공예, 문학, 미디어, 전통, 서예 등을, 예술분야는 무용,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사진, 건축 등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발표회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오는 4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총 22개 동호회를 모집한다. 선정된 동호회는 1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문화관광산업과로 방문 또는 e-mail(iksanart@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이명준 이사장은 “이번 동호회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문화공동체 형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가치 실현에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426건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차 공모도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최근 ‘2021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개인예술가 426건을 발표했다.

올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창작지원(육성형, 심화형, 창작집발간, 문예지발간), 문화예술기반구축지원, 청년예술창작지원 등 총 3개 분야다.

이에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예,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등 10개 장르에서 총 954건이 접수돼 15억7,900만원의 공모금액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사는 예술의 수월성,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신청자(단체)의 실행역량, 해당분야 발전기여도와 파급효과 기준으로 진행, 전라북도 군 단위 가산점과 최초지원 가산점이 부여됐다.

그 결과 문화예술창작지원(육성형)에 158건, 문화예술창작지원(심화형)에 72건, 문화예술창작지원(창작집발간)에 74건, 문화예술창작지원(문예지발간)에 32건, 문화예술기반구축에 44건, 청년예술창작지원에 46건이 선정됐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문학 109건, 미술 59건, 공예 16건, 사진 19건, 서예 15건, 음악 86건, 무용 13건, 연극 16건, 전통 45건, 다원 48건 등이다.

특히, 청년예술 창작지원 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 이상 의무 배정했으며, 심사를 통해 총 46건을 대상으로 총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재단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공모사업은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소극장(소공연장) 지원,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지원 금액은 12억8,000만원이다.

한편 모든 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2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예진흥팀(063-230-7431~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